

2 이슈

양캠 총학 대동제 상품, UI 규정에 곤혹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양캠 총학이 UI(대학 공식 로고)를 활용해 대동제 관련 상품 제작을 계획했지만, UI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양캠 총학은 대동제를 앞두고 '대학 브랜딩'을 위해 UI 로고가 새겨진 축제 상품 판매를 계획했다. 하지만 UI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UI가 사용된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UI 사용 관련 규정은 '경희대학교 UI 디자인 규정'에 근거한다. 총학이 의도한 UI 활용은 규정집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었다. 따라서 제4조 2항,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UI의 사용 및 변경은 사전 서면에 의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했다. UI의 임의적 변형 또한 제5조 2항, 'UI 변경 및 규정집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UI 주무 부서는 전 기관 및 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에 근거해야 한다.

서울캠 총학은 외주 업체를 통해 UI가 새겨진 옷을 제작할 계획이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외주 업체를 통한 생산은 결과적으로 외주 업체에 이윤을 남기기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봤고, 이 때문에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캠 총학은 UI를 변형해 교명이 새겨진 상품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교내 UI를 함부로 변형할 수 없다는 교내 규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캠 총학은 경희대 로고가 아닌



양캠 총학이 제안한 대동제 굿즈의 도안(왼쪽 국제캠, 오른쪽 서울캠). 서울캠의 경우 UI와 교명을 모두 뺐다. (사진=양캠 총학 인스타그램)

대동제 명칭 '마스터피스'를 옷에 새기게 됐다.

국제캠 총학 또한 외주 업체를 통한 상품 제작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와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총학은 공식 SNS에 '2024년 봄 대동제에 한해 UI 사용이 허용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국제캠 총학이 판매하는 상품에는 교명과 UI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타 대학에선 총학이 수익을 내지 않는 선에서 변형된 UI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도 존재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대학 UI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내 축제와 행사 기간에 일시적으로 총학의 UI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총학이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UI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고려대도 총학이 수익을 남기지 않고, 외부 업체가 학교로 입점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UI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원칙상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학생 소속감과 유대감을 위해 축제 기간 홍보팀과 총학생회가 협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이 보장된 상품의 경우, UI 사용을 허락한다. 한양대는 총학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학생회비로 쓰거나, 교내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UI 활용을 허용한다. 중앙대는 학생회가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UI를 사용하는 것을 애초에 상업적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외주 업체와의 거래 자체를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학의 요구를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우

리학교는 쿠(KHU)샵을 통해 공식 UI가 들어간 기념품 및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학교에 지급하고 있다. UI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타 업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외주 업체와의 거래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총학이 쿠샵에 직접 발주를 넣었다면 공식 UI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총학에서 축제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쿠샵을 통해 얼마든지 제작해줄 수 있다"며 "총학에서 직접 디자인을 제작해 요청해도 대부분 다 맞춰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캠 총학에 쿠샵이 아닌 외주 업체에 발주를 넣은 이유를 물었지만 총학은 응하지 않았다.

양캠 봄 대동제 일정 확정

김유성 기자 yusung7179@khu.ac.kr

2024학년도 양캠 봄 대동제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캠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서울캠 대동제는 'MASTERPEACE: Highlight'의 명칭으로 노천극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1일 차 초대 가수로 비비, 실리카겔, 이승윤, DAY6가, 3일 차 초대 가수로 엑스 디너리 히어로즈, 싸이, 라이즈가 참여한다. 2일 차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제 Highlight는 '빛나는 순간들'이란 의미로, 축제를 비롯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특별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국제캠 대동제 'Adelante : 경희의 이름으로'는 멀티미디어교육관 앞 대운동장에서 진행된다. 공연 이외에도 학생 부스, 굿즈 판매, 푸드 트럭,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국제캠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박병준(국제학 2017)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시작하는 첫 축제"라며 "이를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캠 노천극장에서 제1회 설국 합동 응원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27일부터 28일까지 양캠 화합을 위한 교류전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엔 설국 버스 증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